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김경년 베드로 오일공-육구삼-공구이공

평협회장: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돌-이오팔공

선종회장: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2023년 우리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백)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2023년 6월 11일 (제2036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홈페이지: [WWW.OAKCC.ORG](http://WWW.OAKCC.ORG)

근무시간: 수(9am~5pm) 목(6pm~9pm) 토/일(9am~5pm)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신심 단체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성 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평일 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신명기 8,2-3.14ㄴ-16ㄱ

화답송 시편 147(146—147),12-13.14-15.19-20ㄱㄴ(◎ 12ㄱ)

-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네 성문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네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
- 주님은 네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
-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0,16-17

복음환호송 요한 6,51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 알렐루야.

복음 요한 6,51-58

영성체송 요한 6,5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 성가 ]	8시	입당 169	봉헌 221	성체 (기)170	파견 200		
	11시	입당 169	봉헌 212	성체 163, 198	파견 200		
성체 성혈 대축일	6월 11일(일)		6월 13일(화)	6월 14일(수)	6월 15일(목)	6월 16일(금)	6월 17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황혜정 데레사	채성일 토마스	이은자 마트로나	이명련 파트리샤	황혜정 데레사	이명련 파트리샤	안나 요아킴
독서	정기환 레안텔 김영선 안젤라	권창모 미카엘 오자영 효주아네스	정기환 레안텔	윤춘주 세레나	이기자 요안나	이명란 아네스	안나 요아킴
제의방	이선미 에스터	허홍숙 세실리아	이은자 마트로나	윤춘주 세레나	이선미 에스터	윤춘주 세레나	허홍숙 세실리아



## 고요 안에서의 깊은 대화

**하** 느님과 사랑의 만남이 기도입니다. 주님을 만나 대화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데,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합니다. 주님이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대화하는 것까지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일방적인 독백처럼 혼자서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명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만 듣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참다운 대화를 통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은 사람 간의 만남과는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부모님처럼 친구처럼 쉽게 만나 대화할 수 있는 반면에서도, 너무나 크고 신비한 분이시기에 그분과의 만남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좀 더 깊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만남의 주도권을 우리가 아닌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바다이시면 인간은 작은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일대일의 관계로 만나려고 하니 제대로 된 만남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스며들어야 바다를 느끼고 체험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은 그분의 이끄심에 온전히 자신을 맡길 때 진정한 만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느님께 맡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할 때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하느님의 현존'이고, 다른 하나는 '하느님께 맡김'입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느님이 내 앞에, 내 안에 계시을 믿고 느끼며 대화를 합니다.** 대화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기에 일방적으로 자기의 말만 하면 진정한 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솔직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말씀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것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다림' 그 자체로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고요? 주님이 전혀 말씀이 없으시다기보다는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온갖 분심, 걱정, 불안, 의심 등이 마음에 가득해서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러한 것을 비워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요함에 머문다.', '내적 침묵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태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 자신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에서 마리아가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기도의 중요한 자세인 '기다림'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온 마음으로 들으려 합니다. 몸과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어떠한 분심도, 걱정도, 불안도, 의심도 없이 오로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 상태가 내적인 고요함, 내적 침묵 상태이며 모든 것을 주님의 이끄심에 맡겨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될 때 드디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개방된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분명 주님은 항상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특히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과 깊은 대화는 어떤 큰 울림같은 것으로 전해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나 자신의 부족함, 좋은 결심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따뜻한 느낌, 사랑스런 느낌, 포근하면서도 밝은 느낌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특별한 깨달음이나 느낌이 없더라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확고한 믿음, 그분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자라난다면, 그것은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훌륭한 열매입니다. 결국 주님과 만남을 통해 사랑으로 충만된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닮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과 만남이라는 기도에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열매입니다.

**주님은 항상 곁에 계시며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따름입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주님과 참다운 사랑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던 마리아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리아의 마음, 생각, 자세 등을 따라하다 보면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쉬워질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만남을 자주 가져 사랑으로 충만된 기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월간빛, 2020년 8월호, 서보호 라이문도 신부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36명		154명		190명	

  

주일 헌금		2차 헌금		교무금	Bishop	황금빛인생	성소	선교	빈첸시오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b>[교무금]</b> 김향진(7-12), 전문자(6), 김영길(6), 김관수(4-6 )정일양(6), 정청자(1-12), 김복희(5-6), 이명란(6), 박덕희(6-10), 최윤기(6), 이정연(6), 강수영(6), 임희숙(4-6)									
조덕행 최윤기    본당신부님, 윤순희 김현수, 육아가다    최윤기 이명란    조덕행, 이명란 김복희, 강수영									

+ 미사지향

날 짜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지 향	봉 헌 자
6/11(일)	연	주봉진 요셉	가족	6/11(일)	생	장민우	송아네스
	연	유춘성 데레사	가족		생	권영섭 요셉	이선미 에스터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 /아네스		생	권주선 다니엘	이선미 에스터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네스가족		생	황해은 엘리비	김관숙 크리스티나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생	유낙양 베로니카	조용숙 카타리나
	연	조숙자 바울라	조진행 바실리오		생	김선정 알버트	김향진 소피아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생	김선미 실비아	김향진 소피아
	연	박인준 아브라함	박로사가족		생	천다니엘,아네스	조바실리오가족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생	차아름 루시아	차영화 리디아
	연	민정희 클라라	민제노베파		생	전소영 마리나	전데레사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생	브루스 아론조 발바라	전데레사
	연	정미카엘	가족	6/13(화)	연	최정자 쟈마	이동재 안토니오
	연	김마르코	가족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최순일 요셉	가족		연	김옥순 사비나	김명환 인드레아
	연	최순일 요셉	강수산나		생	채규임 데레사	김혜숙 아네스
	연	최순일 요셉	김문환 베드로				
	연	부흥신 마티아	가족	6/14(수)	연	윤천호 바오로	윤세레나
	연	김옥희 아가다	조모나셀라		연	이남희 세레나	이파트리샤
	연	김정탁 요셉	가족				
	연	김화순 안나	가족	6/15(목)	연	장대식 바오로	장루시아
	연	김관숙 크리스티나	김영임 마리안나		생	유낙양 베로니카	김발바라
	연	김관숙 크리스티나	소화옥 안나				
	연	김관숙 크리스티나	류삼수	6/16(금)	생	최쟁마 수녀님	염파트리샤
	연	이흥태 알비나	이선미 에스터				
	연	연옥영혼	이선미 에스터	6/17(토)	연	주봉진 요셉	가족
	연	조병화 솔로몬	꾸리아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b>대 건 한 의 원</b> <b>한의학박사 이 준</b>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	<b>조미정 공인회계사</b> <b>세금보고 및 회계감사</b> <b>Business Consulting</b> ☎ (925)803-0200 Fax (925)803-0204	<b>광고 문의</b> <b>성당 사무실</b> <b>510-553-9434</b>	<b>J &amp; J Auto Service</b> <b>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b> ☎(510)236-0550 <b>강 요 한</b>	<b>광고 문의</b> <b>성당 사무실</b> <b>510-553-9434</b>
---	--	--	--	--